

민주광주서구갑 후보 권리당원 100% 경선

(국회의원 재선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5일 광주 서구갑 재선거 후보자를 '권리당원 100% 경선'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서구갑 재선거의 경우 한 달 사이 공모 보류-공모-전략공천-권리당원 경선으로 민주당의 방침이 4차례나 오락가락하면서 중앙당의 원칙없는 결정에 대한 지역민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성 의무공천을 주장해 박혜자 전 의원에 대한 전략공천을 고려했던 게 사실이지만 논의 끝에 경선으로 결정했다"며 "여러 사정을 감안해 27일부터 이틀간 당원 100% 경선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 단수공천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여성 전략 공천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공관위에서도 박 후보에 대한 적합도가 높았다고 한다"며 "논의 과정에서 박 후보는 끝까지 당을 지켰던 게 있고, 송갑석 후보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100% 권리당원 경선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혜자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당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차분하게 경선에 임하겠다"며 "중앙당의 발표처럼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해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선동정치를 일삼아 온 송 후보는 민주당 후보로서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송갑석 예비후보도 보도자료를 내 "지난 17일 전략공천 소식에 시민들과 당원들은 납득할만한 근거와 이유 없이 결정권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한 것에 분노했다"며 "민주당 최고위가 상식과 순리에 따라 분노한 광주의 민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위 '전략공천' 카드 철회...27-28일 실시 영암·무안·신안은 중앙당 실사 결과 후 결정

전략공천 문제를 놓고 열흘 가까이 진통을 거듭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서구갑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했는데, 여성인 박 전 의원이 사실상 낙점을 받았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송갑석 광주학과 이사장은 물론, 지도부 일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흘러나오며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다.

지난 20일에는 6·10 민주항쟁 이환열 열사의 어머니인 배은심 씨와 일부 당원이 국회 당 대표실을 향의 방문, 경선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은 박 전 의원이 당으로부터 수차례 전략공천을 받아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이와 관련,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박혜자 후보가 전략공천을 두 번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2012년엔 두 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한 후보가 사퇴, 박 후보

당원들은 납득할만한 근거와 이유 없이 결정권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한 것에 분노했다"며 "민주당 최고위가 상식과 순리에 따라 분노한 광주의 민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삼석 전 무안군수와 백재욱 전 청와대 행정관이 맞붙는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경선의 경우 백 후보 측이 "서 후보 운동원들이 선거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에게 걸려온 여론조사 전화를 대신 받아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했다"며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 후보 측은 "전남 선관위와 무안 경찰이 합동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아무런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며 "서 후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데도 백 후보 측이 의혹을 제기해 경선을 방해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된 영암·무안·신안의 경우 25-26일 중앙당의 실사를 거쳐 경선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27일 투표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김재정 기자 jk@kjdaily.com

화순전남대병원 개원 14주년 특집 ▶ 9-12면

文대통령,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제안할 듯

남북정상회담 D-1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두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 간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두는 방

판문점 제시 유력...'공동' 사무소→'주재' 사무소 수순

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소는 특정 사안이 생겼을 때 남북이 모이는 형태가 아니라 남북의 관계자가 같은 공간에 함께 상시로 근무하며 소통하는 상설화 기구를 의미한다. 남북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개성공

단에서 운용한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와 유사한 형태다. 문 대통령이 공동사무소 설치를 제의할 경우 그 장소는 판문점이 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동사무소는 한반도 긴장완화 등을 위해 충분히 좋은

일이라고 본다"며 "서울이나 평양보다는 판문점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보자면 공동 연락사무소가 1단계, 남북 각자의 지역에 주재하는 사무소 설치를 2단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두 정상 이 번에 어느 주제를 어디까지 말할지는 정상회담장에 들어설 때까지 알 수 없다"며 "특히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이행방법에 대해서도 어느 수준에서 얘기가 오갈지도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 상황에서는 공동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상호 설치할 경우 북한 관계자가 직접 대한민국 한반도에 들어와야 해 경호와 국민감정 등에 비춰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이라는 지리적 위치와 상징성이 주는 의미가 남북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의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공동 연락사무소의 판문점 설치 추진은 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는 남북정상회담 정례회 추진과도 맞물려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판문점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으로, 그 원칙에 합의할 가능성은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판문점에서 수시·정례 회담이 열린다면 남북 간 매우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실무나 고위급에서는 안 풀리는 문제 하나만을 놓고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타결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문점공동취재단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평화야 날아라! 25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성공개최 기념 합평 나비날리기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평화를 기원하며 나비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5·18 신고센터·광주대책위 구성 시급"

광주매일신문-5·18기록관, 광주정신포럼 개최

오는 9월 출범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 가장 광주대책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사전 신고센터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5면

광주매일신문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25일 오후 기록관 7층 다목적실에서 '5·18진상규명, 완성품 조사에 이르러...'를 주제로 한 광주정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5·18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7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염규홍 전북도교육청 인권옹호관은 "이번이 5·18의 진실 밝혀내는 마지막 기회"라며 "때문에 가해자인 국방부는 이번 조사에서 빠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상규명이 출범하기 앞서 사전신고센터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준호 법무법인 평우 대표 변호사는 "사전신고센터는 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최소한의 인력을 두고 설치 가능하다"며 "5·18단체 등에 신고사항 수집절차를 대행하는 방식

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성수 광주매일신문 편집국장은 "가칭 광주 현시대대책위를 서둘러 구성하고 조사관의 인원을 50명에서 100명 선으로 확대해 체계적인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공동저자인 이재의씨는 "1997년 대법원 판결 이후 5·18을 왜곡하는 사건이 이어졌다"며 "청문회를 열어 왜곡 세력이 어떻게 민주질서를 파괴했는지 실상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날 포럼에서는 ▲5·18 관련 검찰 수사 및 재판 기록 분석 ▲진상규명

위 정원(증대) 합의안 마련 ▲위원장·위원·조사관 선임 시 철저한 검증 ▲조사관 근무 상한 연령 70대로 조정 ▲책임자 처벌보다 진상규명 주력 등도 진상규명 활동의 성과를 좌우할 의견으로 제시됐다.

포럼 시작에 앞서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는 "올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예년과 다르게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있어 뜻 깊게 다가오는 것 같다"며 "포럼은 위원회 구성의 책임자 선정 등을 논의 하는 첫 걸음인 만큼 5·18의 실제적 진실이 규명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외갑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의 진실은 하나다. 그 하나를 발굴하기 위한 국민 모두와 광주의 지혜를 모아 좋은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성수 기자 ohssj@kjdaily.com

제30회 광주광역시양궁협회장배 종별 양궁선수권 대회

'양궁의 메카' 광주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 갈 양궁선수들의 제21회 제30회 광주광역시양궁협회장배 종별 선수권대회가 오는 5월 2일~3일 이틀간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 광주매일신문 애독자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2018년 5월 2일 - 3일

광주국제양궁장

주 최

광주광역시 양궁협회 · 광주매일신문

후 원

광주광역시체육회

문 의

광주시 양궁협회 062)373-6294